

花崗石으로 圓刻한 藥師如來 立像이 있다. 全高三·三三m로 南向하고 있다. 頭部는 切斷된 것을 세멘트로 接續시켰고 鼻端을 亦是 세멘트로 補修한 顔面은 磨損되었으며, 肉髻도 똑똑치 않다. 通肩한 法衣가 무릎 위에서 굽은 變線을 보이면서 左右로 갈라졌고 그 밑에 裙衣가 처졌다.



聞慶 石造藥師如來立像

右手는 右側에 內掌하여 늘어뜨렸고, 左手로는 膝前에서 寶珠를 받치고 있다. 背面에도 衣紋이 보이 나 매우 희미하며 寶珠는 세멘트로 補修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 像은 巨大하기 는 하나 精刻이라 할 수 는 없다. 石質의 탓으로 磨損이 甚함도 本像의 外觀을 極히 損傷시켰다. 그러나 決코 拙作은 아니며 部分的으로 雄健한 風이 깃들고 있다.

右手는 右側에 內掌하여 늘어뜨렸고, 左手로는 膝前에서 寶珠를 받치고 있다. 背面에도 衣紋이 보이 나 매우 희미하며 寶珠는 세멘트로 補修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 像은 巨大하기 는 하나 精刻이라 할 수 는 없다. 石質의 탓으로 磨損이 甚함도 本像의 外觀을 極히 損傷시켰다. 그러나 決코 拙作은 아니며 部分的으로 雄健한 風이 깃들고 있다.

堤川の 模塼石塔 二基

鄭 永 鎭

一、長樂里 七層模塼石塔

忠北堤川驛下車 邑內에서 寧越行 道路를 따라 約二km 寧越郡 酒泉面으로 갈러지는 삼거리 右便 鐵道 넘어 발 가운데 몹시 破損되어 北쪽으로 기울어진 七層塔 一基가 現存한다. 이 곳 一帶를 塔內洞이라 하며 洞民들은 「蒼樂寺」라 하는데 塔周邊의 밭에서는 埋沒된 礎石

第一卷 第二號 第二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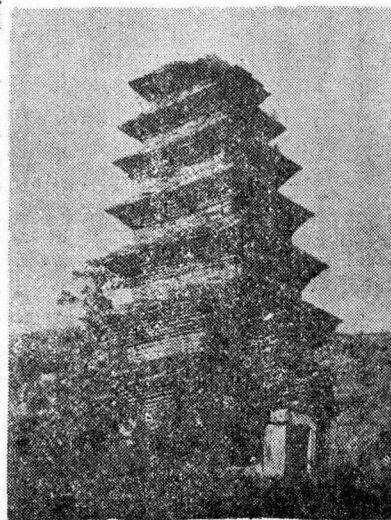
과 數 많은 瓦片을 發

見한다고 한다. 塔은 完全하였던 것이 約三〇年前 日人이 寶物을 竊取코자 下部를 破損시켜 現在와 같이 二層까지의 塔身 一隅가 무너진 것이다 한다. (洞民 李乃雨氏談)

이 塔은 一見 塔樣式을 보이고 있으나 塼築이 아니고 灰青色의 石材를 (塊石이라 함) 塼과 같이 長三〇—四〇cm, 厚五cm의 方形으로 切斷하여 生石灰 등을 使用함이 없이 築造한 手法으로 보아 三國末의 慶州 芬皇寺石塔系에 屬하는 遺構라 하겠다. 洞民들에 依하면 隣近 義林池 뒷산 龍頭山에서 이와 같은 石材가 많이 採掘된다 하며 이 塔의 解體 修理에 關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한다.

全高九·一m의 巨塔으로서 基壇部는 數個의 自然石을 다듬어 地臺石을 삼고 그 위에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은 四隅에 高一·三七m 幅二十一cm의 花崗岩 石柱를 세웠는데 東·西兩面은 模塼石으로 築造하였고 南·北兩面은 그 中央에 花崗岩으로 開閉式이 아닌 門扉 二枚를 달았으나 南面은 高一·三七m 幅一·〇八m의 「문틀」을만이 殘存하였고 北面은 門扉와 문틀이 具存한다. (門扉 二枚의 크기는 高八十五cm, 幅六十一cm인) 幅二m八〇cm의 初層에서 破損된 部分에 露出되어 있는 積心石은 自然石으로서 昔은 全히 使用되지 않고 있다. 二層부터 七層까지는 比較的 完全하여 築造의 手法을 뚜렷이 觀察할 수 있으며 屋蓋받

침은 一·二·三層이 九, 四·五層이 八, 六, 七層이 七로서 各層 屋蓋의 四隅에는 모두 구멍이 뚫어져 있어 風磬을 달았던 痕迹이 엿보이며 七層 一隅에는 「쇠고랑」도 아직 殘存한다. 相輪部는 없으나 一邊七〇cm의 花崗岩의 方形露盤이 塔頂에 남아 있고 그 中心에는 直徑一七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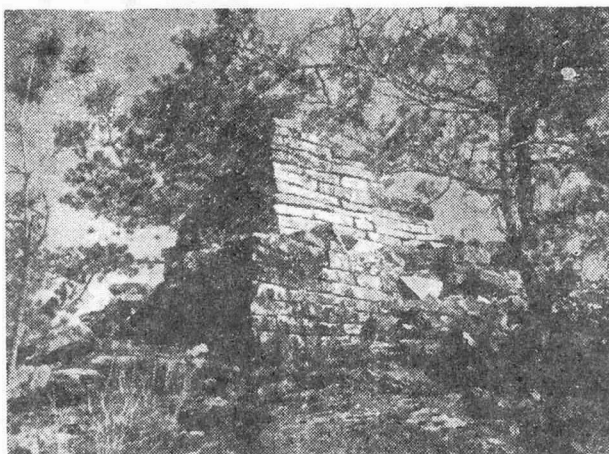


長樂里 七層模塼石塔

의 圓孔이 있어 擦竿이 貫通하였던 것으로 推定되었다. 塔은 많이 傾斜되었고 破損이 極甚함에 時急한 保存對策의 樹立을 위하여 이와같이 貴重한 遺構에 對한 學術調査가 期待되는 바이다.

二、校里 模塲石塔

堤川邑을 出發 忠州行 定期岬一스(一日三回)로 約二〇軒 淸風面에서 下車 淸風邑에서 江을 건너 (定期渡船場) 徒歩로 約二軒 校里의 鄕校所在의 洞里를 바라보면서 右便쪽으로 들어서면 田中의 一屋인 校里塔洞二七番地 李明和氏宅 앞을 지나는 길로 다다른다. 여기서 다시 錦鑪山골짜기로 約三軒(李明和氏계 問議하여야 容易한) 山중턱 큰 岩石위에



校里 模塲石塔

모씨 破損되어 原形을 全히 알 수 없는 模塲石塔의 下層 一部가 遺存한다.

이곳서 問議한 바에 의하면(이곳 三代居住者 李明和氏 三十九歲談) 約二十五年前까지는 七層까지 完存하며 洞民들의 佛供도 있었다 한다. 그러나 그後 日帝時 怪漢들이 塔內의 寶物을 盜取코자 이같이 無慘하게 倒壞하였다고 한다. 花崗岩을 長 三〇—四〇cm、 두께 一五—二〇cm의 方形 塲形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高

一·一四m 幅四·〇五m의 基壇 위에 이보다 두께가 얇은 模塲石으로 築造한 高一·四一m、 幅二·一m의 第一塔身의 西面 一隅만이 殘存한다. 現場에는 많은 塔材가 散在하여 原狀을 알기 困難하나 그 復元을 위하여서는 慎重한 調査를 要할 것이다. 이 塔에서 西쪽으로 約五〇m 떨어진 곳에는 高約三m、 長約二〇m의 石築이 埋沒되어 있고 그 周圍에 瓦片이 散亂하고 있음은 注目되는 바이다.
以上 兩塔을 通하여 堤川을 中心한 模塲石塔의 樣式과 分布는 年代의 推定과 아울러 今後의 再調의 課題가 됨을 附言코자 한다.

仁川博物館藏 觀音坐像

李 慶 成

이 觀音像은 日本人들이 敗戰後에 버리고 간 富平造兵廠 古鐵積載場에서 一九四六年 三月에 發見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 觀音像以外에도 많은 中國 金屬美術品들이 古鐵과 더불어 山積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所謂 大東亞戰爭末期에 日本軍이 北部中國과 滿州에서 強制로 供出시킨 것들이며 筆者는 그 중에서 이 觀音像을 비롯하여 中國의 鐵製梵鐘 三點、 靑銅鼎 二點、 獸形大砲 一點을 仁川博物館으로 옮겨왔던 것이다. 또 그때 別途로 이곳에서 搬出한 것으로는 明代 것으로 보여지는 鐵製梵鐘 一口가 江華 傳燈寺에, 靑銅鼎 四點이 國立博物館에 그리고 崇禎年號刻銘이 있는 鐵製大砲가 一口는 仁川 昌榮國民學校에 다른 一口는 高麗大學 博物館에 各其 收藏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于先이 觀音像만을 紹介하는 것이다.

이 觀音像은 靑銅製로서 仰蓮重瓣台座 위에 右足を 세우고, 左足은 납히고 있는 像容으로서 台座에서 頭頂까지의 全高七〇cm 像高 五十三cm 膝幅 三十七cm이다. 台座는 二層으로 된 仰蓮瓣이며 上段은 九瓣, 下段은 十瓣으로 正面에만 鑄出되어 있고 後面에는 銘文板이 둘러져 있다